

인권정보자료실
CPk1.31.2

고문
관련
신문
기사
II
(90. 3. 15
-
95)

고문 관련 신문 기사 II
(90. 3. 15 - 95)

MY HOLDER
40
pockets

인권정보자료실
CPk1.31.2

“연예PD 검찰서 고문”

PD연합회 성명 수사진 처벌 요구

1990. 03. 15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이윤선)는 14일 성명을 통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연예담당 프로듀서 공판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한 무차별 고문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가혹행위를 한 검찰 수사진을 자체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공권력이 가혹행위까지 동원해 방송계의 도덕성을

폭락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국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인권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장씨 부부 구속 관련 서베를린 시장 ‘우려’편지

발터 뮐퍼 서베를린 시장은 김현장·영애씨 부부 구속과 관련 21일 서독 본 주재 한국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1990. 03. 23. 8년 서독 방문 때 서독동포들과 대한민국 전복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김씨는 단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다.



인도 고문피해자 회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조절위원회 주선으로 입국한 인도의 고문피해자 아르차나 구하겐센(49·왼쪽)이 4일 오후 서울 서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74년 인도 서방 끝지방에서 낚살라이트라는 급진 마르크스주의운동을 벌이던 동생과 관련, 경찰에 연행돼 27일간 불법구금된 채 불로 지저기, 미리구타 등 각종 고문을 받고 풀려났었다. <진천규 기자>

13 日字: 1990 6. 9 所

拷問세관원 구속하라

【釜山=朴成東기자】釜山세관 87년 사건 피해자 탈출한 이영수가 탈출한 전직세관원 세관의 피해자 朴明律씨(37·釜山市東萊區溫泉1동)는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법의 시신과 26명의 처형을 당한 전직세관원 3부, 8명 탈출범인인 釜山 繼續장관(사)장고부, 朴明律 林興雨씨(50)와 梁慶培씨(37)도 이영수의 구속전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양대 부속법원의 사 5 이영수가 탈출한 전직세관원 3부, 8명 탈출범인인 釜山 繼續장관(사)장고부, 朴明律 林興雨씨(50)와 梁慶培씨(37)도 이영수의 구속전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최부가 불응한 삼담담도 3 6개월의 최루가, 의무등과 2명이었다.

피해자인 朴씨는 탈출범인 3부, 8명 탈출범인인 釜山 繼續장관(사)장고부, 朴明律 林興雨씨(50)와 梁慶培씨(37)도 이영수의 구속전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최부가 불응한 삼담담도 3 6개월의 최루가, 의무등과 2명이었다.

경찰이 전자봉拷問

地下室에 가두고 暴行 自白 강요

高校生들 주장... 警察선 조사하겠다

【서울=배경록기자】경찰이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면서 고교생들을 전자봉 등으로 고문,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보석으로 풀려난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경기도경 특별수사기동대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7조 흡기소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오아무개(19·성남 1고3)군 등 고교생 5명은 지난달 2일 성남경찰서 성남파출소로 연행된 뒤 다시 경기도경 특별수사 기동대로 넘어가 4일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전자봉 고문과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경 특별수사기동대장 지구백 경감은 "기동대안 식당에서 연행학생들을 모아놓고 자발적인 진술을 받아낸 뒤 검찰의 지시를 받아 구속했을 뿐"이라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26 日字: 1990. 4. 6 所載:

【수원=배경록 기자】경찰이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면서 고교생들을 전자봉 등으로 고문,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보석으로 풀려난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경기도경 특별수사기동대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7조 흡기소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오아무개(19·성남 1고3)군 등 고교생 5명은 지난달 2일 성남경찰서 성남파출소로 연행된 뒤 다시 경기도경 특별수사 기동대로 넘어가 4일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전자봉 고문과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경 특별수사기동대장 지구백 경감은 "기동대안 식당에서 연행학생들을 모아놓고 자발적인 진술을 받아낸 뒤 검찰의 지시를 받아 구속했을 뿐"이라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경찰이 전자봉 고문"
구속된 뒤 석방 고교생 주장

【수원=배경록 기자】경찰이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면서 고교생들을 전자봉 등으로 고문,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보석으로 풀려난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경기도경 특별수사기동대에 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7조 흡기소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오아무개(19·성남 1고3)군 등 고교생 5명은 지난달 2일 성남경찰서 성남파출소로 연행된 뒤 다시 경기도경 특별수사 기동대로 넘어가 4일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전자봉 고문과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4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경 특별수사기동대장 지구백 경감은 "기동대안 식당에서 연행학생들을 모아놓고 자발적인 진술을 받아낸 뒤 검찰의 지시를 받아 구속했을 뿐"이라고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1990 04 05

‘범죄와의 전쟁’ 선포 뒤 일선경찰서 수사관들이 검거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연행·조사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부쩍 심해져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8일 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발생한 폭행피의자 공병진(20)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비롯, 일선 수사관에 의해 잇따르고 있는 이런 무리한 수사는 ‘전쟁’ 선포 뒤 이미 충분히 예견된 ‘부작용’이었다.

일선 경찰관들이 가시적인

위는 경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경찰은 공씨를 ‘폭행수사’ 하면서 몇가지 반복되어 온 악습을 되풀이했다. 공씨를 연행한 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지하무도장으로 끌고가 마구 폭행한 뒤 가혹행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마저 여지없이 무시한 것이다.

먼저 경찰은 연행 48시간이 지나도록 가족에게 연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공

말하면 가만두지 않았다’며 협박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수사관들은 아직도 “죄질이 나쁜 형사피의자들을 때려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이 나쁜냐” “잡범들은 고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사가 안된다”는 등 고질적 병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 전쟁’ 선언 뒤 고문 재연

401 검거실적 높이려 용의자 강압수사 잇따라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범인 검거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하면 이번 일련의 가혹행위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경찰이 범죄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기 위해’ 단지 혐의를 지닌 ‘범죄 용의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인상마저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강서경찰서에서의 경찰관에 의한 가혹행

씨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막았다.

경찰은 또 공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신청한 것처럼 ‘형사대기 피의자명부’에 허위로 기재하는가 하면, 언론에 가혹행위 사실이 보도되자 “죄질이 나빠 연행과정에서 몇대 쥐어 박았을 뿐”이라고 태연히 변명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경찰이 취재진을 때들리기 위해 형사피의자를 분석 형사계가 아닌 인근 파출소로 데려다 놓고 “가혹행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그러나 강서경찰서의 경우처럼 어디까지나 ‘용의자’에 불과한 공씨를 가족들에게 있는 곳조차 알리지 못하게 한 채 기뒀고 모르게 폭행한 경찰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결코 범죄용의자에 대한 인권 무시나 고문수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1990. 10. 21
(이상기 기자)

사노맹 고문폭로 잇따라

“안기부서 사흘동안 온몸폭행 당했다” 변호사에 후유증 호소...무죄 주장도

1990. 11. 07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안기부가 사노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원으로 밝힌 구속자 7명이 사노맹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수사발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혹행위와 ‘사노맹사건 무관’ 주장은 최근 이 사건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가족면회를 통해 6일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 23일 이성수(27·세대 산업실리4 중퇴) 씨를 접견한 박연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달 5일 안기부에 연행된 뒤 목비권을 행사하다가 2, 3일 동안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해 심한 탈수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씨의 어깨에서 구타발에 심하게 채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이 상처가 고문으로 생긴 것이라는 증거보전신청을 곧 법

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월17일 안기부에 연행된 한정덕(27·사노맹 연락국장·성대 화학3 휴학)씨도 “연행된 뒤 3일 동안 전혀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2, 3차례에 걸쳐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 온몸을 혹독하게 구타당했다”고 지난 2일 접견한 유선호 변호사에게 밝혔다.

현재는 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이 나를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몽둥이로 온 몸을 때렸다”면서 “심지어 옷을 모두 벗긴 채 플라스틱 자로 성기를 때리는 성적 모욕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남진현(28·사노맹 중앙위원·서울대 무기재료3 재적)씨를 면회한 남씨의 애인 조인옥(27)씨는 “남씨가 안기부에 연행된 뒤 처음 이를 동안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몸에 멍이 많이 들었다”면서 “이마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구속자 가운데 일부가 가족 면회 등을 통해 사노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사노맹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발표 내용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10일 구속돼 같은달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족을 면회한 정미화(22·여·대구 대덕고교 교사)씨는 “신문을 통해 안기부의 사노맹 수사결과 발표를 본 뒤 비로소 내가 ‘사노맹’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사노맹 정의의 출판물 몇부를 돈을 주고 산 사실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족에 따르면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등 구타를 당했으며, 이런 사실을 구속되기 전 안기부 가족면회 때

밝히려 했으나 그 자리에 동석했던 5~6명의 수사관들이 말을 막아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19일 구속된 전금숙(24·여·성균관대 줄)씨도 가족면회에서, 자신은 사노맹이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더라며 단순히 함께 구속된 이병애씨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혐의가 씌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옥현(28·민중당 대구 북구지구당 대외협력 간사)·정은희(26·여·경희대 민주동문회 홍보부장)·권종길(25·고려대 영문졸)·한두석(27·한양대 경제4)·이동기(29·민중당 대구 북구지구당 운영위원)씨 등도 모두 사노맹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단순히 관련자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사노맹 관련 유인물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직원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 11월 8일 목요일 제1000호

12면

서울특별시 중구

전화번호: 02-377-1111, 02-377-1112, 02-377-1113, 02-377-1114, 02-377-1115, 02-377-1116, 02-377-1117, 02-377-1118, 02-377-1119, 02-377-1120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1990년 11월 8일

'안기부 고문' 각계서 진상규명 요구

사노맹 구속자 가족등 민가협, 국제인권기구 제소 검토

속보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전민련·민가협 등 재야 단체와 변호사, 관련자 가족들은 5공화국에 이어 6공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고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민련은 7일 사노맹 구속자들의 고문주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안기부에 의한 야만적 고문

과 가혹행위 주장을 접하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고문과 조작으로 유지됐던 전두환 정권이 박종철씨 고문치사로 무너졌음을 상기하면서 고문 등을 통한 무리한 수사 및 인권유린, 사건조작으로 지탱되는 정권은 결국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도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사실이

라면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일어난 최초의 집단적이고 노골적인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사기관의 이런 불법·탈법행위를 국제인권 관계기구에 제소할 것을 결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노맹 관련 구속자들을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연행된 뒤 한달 이상 지나야 접견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고문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인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유롭게 만나 사실확인

과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속자들 가족은 "안기부가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안기부의 이런 태도는 항상 있어 왔던 게 아니냐"며 "구속된 장호영(22·안양 성결신학대3)씨 등도 가족면회를 통해 고문사실을 폭로한 바 있어 실제 고문 피해자는 보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 11월 8일 목요일 제1000호

전화번호: 02-377-1111, 02-377-1112, 02-377-1113, 02-377-1114, 02-377-1115, 02-377-1116, 02-377-1117, 02-377-1118, 02-377-1119, 02-377-1120

分類: 703 日字: 1990. 11. 8 所載: 2 面: 19

拷問진상규명 요구

社勞盟사건 全民聯 민가협 성명

국제인권기구에 提訴검토

東亞日報社調查

전민련은 7일 사노맹 구속자들의 고문주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안기부에 의한 야만적 고문과 가혹행위 주장을 접하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고문과 조작으로 유지됐던 전두환 정권이 박종철씨 고문치사로 무너졌음을 상기하면서 고문 등을 통한 무리한 수사 및 인권유린, 사건조작으로 지탱되는 정권은 결국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도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사실이

라면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일어난 최초의 집단적이고 노골적인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사기관의 이런 불법·탈법행위를 국제인권 관계기구에 제소할 것을 결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노맹 관련 구속자들을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연행된 뒤 한달 이상 지나야 접견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고문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인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유롭게 만나 사실확인

안기부, 시국관련 피의자 '고문'

1990. 12. 20

'자민통' 사건등 구속자 주장 "발가벗기고 각목 구타"

최근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각각 발표된 '선진대중조직' '자주·민주·통일(자민통)' 사건 관련자들이 안기부에서 심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선진대중조직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선대협 의장 홍갑직(23·전남대 총학생회장)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박성민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 남산본실에서 조사를 받던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있지도 않은 조직의 강령·규약 등을 대라며 침대각목 등으로 온몸을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자민통'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김요섭(24·한림대 전 총학생회장)씨를 접견한 김한주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강원도 춘천에서 안기부에 연행된 뒤 이틀동안 잠을 못 자면서 온몸을 발가벗긴 채 야전침대 각목과 주먹, 구타발 등으로 허리와 가슴을 심하게 구타당했다는 것이다.

18일 김씨를 면회한 형 윤섭(29·목장경영)씨는 "동생이 목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수사관들로부터 아전삼자투를 무릎 사이

에 끼운 채 올라앉아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와 함께 침대각목으로 허리를 심하게 맞아 아직도 후유증으로 매일 구치소 의무실에서 많은 양의 진통제를 타서 먹고 있다"고 전하고 "수사관들은 '이렇게 고문하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들었고 '가혹행위를 중단했다'고 동생이 말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기수(24·경희대 경제4)씨는 최근 면회는 누나 명숙(35)씨에게 전달한 편지를 통해 "발가벗긴 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사관들이 구타발로 온몸을 짓밟고 각목으로 구타했으며 고무신짝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한동안 얼굴이 벌레 쏘인 것처럼 부었다"면서 "병신되기 싫으면 자백하라"는 협박 때문에 '자민통' 중앙위원이라고 허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민통' 총책으로 발표된 최원국(26·외국어대 영어과)·전상현(24·중앙대 철학과)·김지현(24·경기대 사학과 대학원)씨 등도 각각 변호사를 통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통' 관련 구속자 가

족 대책위원회와 민가협은 가혹행위로 생긴 상처의 증거보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내고 관련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안기부, 사노맹피의자 고문"

관련 4명 가족 변호사 주장 "성금모금 집중 조사"

1991. 1. 13

"가혹행위 못이겨 조직원 허위자백"

1명 자살기도도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성금 모금 과정을 수사하면서 모금활동을 담당했던 강제운(27·한양대2 휴학·시인)씨 등 '노동해방 문학실' 직원 4명에 대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12일 이들을 접견한 변호사와 가족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강씨는 고문에 견디다 못해 면도칼로 왼쪽 손목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들 4명 모두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해 사노맹 조직원이라고 허위자백했으며, 검찰 조사 때 안기부 직원이 따라나와 감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오는 18일 열릴 공판에서 자백의 임의성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강씨를 접견한 유선호 변호사에 따르면 강씨가 지난해 10월29

일 안기부에 연행된 뒤 성금모금 경위·모금대상자·성금사용 내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손가락 사이에 젓가락을 끼우고 누르는 고문과 가슴·허벅지 등에 심한 구타를 당해 두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이 결리는 등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강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견디기 어려워 화장실에서 주운 면도칼로 왼쪽 동맥을 끊으려다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다고 말했다"면서 "강씨의 왼쪽 손목에 4cm 가량의 꺾임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유 변호사에게 "사노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문과 협박에 못이겨 '노동문학사' 입사 때 낸 자기소개서를 '사노맹 가입서'로 인정했다"면서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안기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 조사가 이뤄져 허위로 자백한 부분을 번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8일과 19일 각각

안기부에 연행돼 구속된 소종민(22·성대4)씨와 이원혜(25·여·중앙대 대학원 휴학)씨도 유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성금 모금활동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과 허벅지를 구타당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무수히 맞았다"면서 "이 때문에 사노맹 가입 여부 등 조사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말했다.

소씨와 함께 구속된 '노동해방 문학실' 실장 장민성(26)씨도 "조사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해 여러차례 코피를 흘렸으며, 사노맹 조직원이라는 것과 박노해씨를 직접 만나 성금모금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등을 허위 자백했다"고 말했다고 11일 강씨를 면회한 가족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쪽은 "강씨의 주장처럼 자살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1회용 면도칼로 왼손을 긁는 자해행위를 한 것뿐이며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혹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 4명의 성금 모금활동과 관련해 안기부는 지난 12월27일, 이들이 각계 인사 55명으로부터 수배중인 박노해씨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2천40만원의 모금해 사노맹 중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95-2.9

사회

□ 유엔 고문방지조약 국내발효 의미 폭언·폭행 수사관행 변화 관심

고문방지위 조사권...각국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따라야

하성봉 기자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8일부터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국내 수사관행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에 의한 고문방지가 목적인 이 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폭언·폭력 등을 저질러 온 국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문방지조약에 따르면 △가입국은 모든 고문행위를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관련 범죄행위자는 가입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행위가 있는 가입국에 대해 조사협조와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각국 내의 고문사건에 대해 비공개조사권을 갖고 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고문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조약은 가혹행위에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잠안재우기, 철야신문, 장시간수사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문미수범도 고문범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은 혐의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선고전이라도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문범의 경우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고문에 가담한 자가 해당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경

우에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병확보에 나서며,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계속된 치료 등을 통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입한 조약내용 가운데 개인청원권과 국가간 문제제기권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조사 및 처벌이 미흡할 경우 개인이 직접 유엔에 제소하는 방법은 봉쇄돼있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변호사는 "개인청원권이 없더라도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간접적인 강제성을 지닐 수 있는 만큼 인권보호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조약의 발효와 함께 고문을 근절하려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分類: 1/222 日字: 1989. 1. 6 所載: 2 版

政治자금 조성관련 李源祚씨 집중조사

김철, 李根安경감 拷問 실무지도 수사

고문방지위 조사권... 각국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따라야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8일부터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국내 수사관행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에 의한 고문방지가 목적인 이 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폭언·폭력 등을 저질러 온 국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문방지조약에 따르면 △가입국은 모든 고문행위를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관련 범죄행위자는 가입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행위가 있는 가입국에 대해 조사협조와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각국 내의 고문사건에 대해 비공개조사권을 갖고 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고문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조약은 가혹행위에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잠안재우기, 철야신문, 장시간수사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문미수범도 고문범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은 혐의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선고전이라도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문범의 경우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고문에 가담한 자가 해당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경

우에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신병확보에 나서며,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계속된 치료 등을 통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입한 조약내용 가운데 개인청원권과 국가간 문제제기권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조사 및 처벌이 미흡할 경우 개인이 직접 유엔에 제소하는 방법은 봉쇄돼있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변호사는 "개인청원권이 없더라도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간접적인 강제성을 지닐 수 있는 만큼 인권보호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조약의 발효와 함께 고문을 근절하려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東亞日報社調查部

김근태씨 고문경관 수사 착수

1989. 2. 05

지정변호사, 최상남씨 신문

김근태씨 고문사건 공소유지담
지정변호사인 김창구 변호사
수사에 착수, 4명의 피고인중 최
상남(41) 경장을 서울형사
법원에 출마 조사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이제까지 고문사
건 피해자인 전 민청련 의장 김

근태(42)씨와 김씨가 수감돼 있
던 서울구치소 전 보안과장 송선
홍(53)씨 및 교도관들에 대한 수
사를 벌인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4명에 대
한 공판기일 전 유속요청 여부
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김 변호
한편 최 경장은 이날 조사에서
고문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근안의 고문기술' 실제사건 무대 올려

1993. 9. 02



4~5일 제주 문예회관 무대에 오르는 <저 창살에 햇살이>. 제주 연희패 '한라산'이 간첩 혐의로 수감된 무기수 이장형씨 사건을 극으로 꾸몄다.

김근태씨 고문수사관들이 법정 구속됐지만, 직접 고문을 실행하고 지휘한 이근안씨는 4년째 잠행하고 있다. 간첩활동과 북한방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북제주군 고산리 사람 이장형(60)씨도 이근안씨가 수사한 사람이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놀이패 '한라산'(제주 53-9539)이 이장형씨 사건을 극으로 만든 <저 창살에 햇살이>를 4일 오후 7시, 5일 오후 4~7시 제주시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한라산은 "이장형씨 사건은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고문으로 만들어낸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재판과 감옥생활, 고문과정 등을 재구성해 증명해가는 방식으로 극을 진행한다.

한라산은 87년 창립해 <설운 땅 일어서는 사람들> <개발바람 오름 너머> 등 마당극을 공연해온 제주 지역 연희패이다.



국민의 관심이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쏠렸는데 대해 "공소유지에 이 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하는 조영환변호사.

문씨 "속죄양" 변명에 "새 사실 더 있다" 권양반박

부천시 성고문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80년대 압울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특히 '성고문'이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실 앞에서는 반항하지 않고 싶지도 않았다. 그동안 야망은 물론 재야, 친구들 속에서 끊임없이 '폭로대회' 및 '구급대회'를 벌여온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반증. 또 검찰이 문씨에 대해 독직가혹행위죄가 성립된다는 '정상을 참작한 나머지 기소유치분을 내리자 1백60명이라는 최대규모 변호인단이 구급대회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재정신청을 낸 사실도 이 사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처벌대상 폭 예의주시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지난 2월 29일. 재정신청이후 인천지검 및 서울지검·서울고법에서 기각되는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은지 만 19개월 26일만의 일이었다. 특별검사(정식명칭 공소유치담당 변호사)로 조영환변호사(47)가 선임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뒤인 3월 25일의 일. 그후 4월 9일에는 권양양(25·서울대 의류과 4년제 재)에 대한 사실조사가, 12일에는 문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씨는 "나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죄를 뒤집어쓴 속죄양"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에 권양양은 "서울고법에서 인정한 문씨의 범죄사실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사건의 진상이 얼마나 파헤쳐질지는 공판과정을 지켜봐야 알게 될 일.

「성고문」 특별검사 조영환

책회의가 별다른 논의도 없이 유아우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단순히 문씨 개인에 대한 징벌의 차원에서만 끝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슬한 물의를 빚어왔고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됐던 수사기관의 인권유린행위도 마위에 올려질 것인지의 여부도 주시의 대상. 한마디로 '부천시 성고문사건'은 80년대의 복잡미묘한 상황과 맞물려 있는 사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인 조영환호로부터 들어본다. - 대단히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 현재 느끼는 바는. ▲이 세상에서 고문이란 것은 마땅히 추방돼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런 전근대적인 행위가 모든 국민이 보호받고, 또 보호해야 할 장소인 경찰서 구내에서 이뤄졌다. 이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그런 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신문중 문씨의 태도는 어땠는가. ▲상오 11시에 시작, 새벽 0시 30분까지 13시간여동안 꼬박꼬박 대문을 연다.

검찰관계 소환은 증언과 결정

문씨에 대한 고문에 관한 것 같다. - 문씨가, 조영환변호사가 재판부에 공판전 구속을 요청한 사실과 관련,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듯하다"는 이유로 검사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내가 알기로 검사기피 신청제도는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대질신문 필요없을 것”
-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가.

▲아직 분명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지난번에도 '무혐의'가 아닌 '정상참작'에 의해 기소유치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서 관계 기관대책회의의 구체적 실상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공소유치담당 지정변호사이다. 따라서 공소유치권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만큼 관계 기관대책회의가 공소유치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 변호인단의 고발장에 따르면 권양 외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했다고 기록되었는데 성고문이 조직적으로 사용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생각은 없는가.

▲없다. - 앞으로 공판은 어떻게 되는가?

▲5월3일에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 이후의 예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문씨가 권양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대질신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

▲문씨에게는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가혹행위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된다.

단둘이 알되 「하나뿐인 진실」이 문제 「대책회의」 제모습 밝혀질지 미지수

국민이 보호받고, 또 보호해야 할 장소인 경찰서 구내에서 이뤄졌다. 이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그런 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신문중 문씨의 태도는 어땠는가. ▲상오 11시에 시작, 새벽 0시 30분까지 13시간여동안 꼬박꼬박 대문을 연다.

지 않은가. ▲공소장 내용에 대해 권양과 문씨의 진술이 각각 달라 공판시 작전에 옥 전서장, 박성룡 전조사 계장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계자의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중이다. 참고인들의 증언을 듣고나야 결정할 수 있을 듯하다. - 권양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고문도 당했다고 하는데...

고무양피부 632
굽이 나와 고무를 얻기도 하여 흔히 고무나무로 부르지만 고무를 얻는 것보다는 관상식물로서 널리 심고 있다. 파나마고무나무와 마니호트고무나무 및 중앙아시아에서 자라는 민들레의 일종인 고무민들레(Taraxacum kokosaghyz)에서도 고무를 얻는다. 파라고무나무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한해에 쓰이는 고무의 약 30%를 고무민들레에서 얻고 있다. 마니호트고무나무는 키가 10m 정도까지 자라는 관목이며, 파나마고무나무는 상록교목으로 키는 20~30m 정도 자란다. (申煥鎭)

고무양피부 — 樣皮膚 India rubber skin ⇒ 엘리스탄로스중후군
고무종 — 腫 gumma 종양같이 생긴 육아종성(肉芽腫性)의 부드러운 덩어리. 매독 후기에 대부분 피부나 점막 아래에 나타나지만 뼈, 신경계통, 기타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 → 매독
고무줄놀이 고무줄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 놀이. 동요 또는 변형된 구전동요에 맞추어 특정한 발동작을 취하면서 뛰고 남고 하는 유희로, 줄넘기*와 함께 8~12세 사이의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즐기는 놀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4명이 편을 갈라 노는 것이 보통이지만 더 많은 수의 인원이 하기도 한다.
놀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무릎 정도의 높이에서 각기 다른 노래에 맞추어 발이나 다리가 줄에 닿지 않게 뛰거나 넘는 발동작을 하는 형태이고, 같은 노래에 맞추어 아주 낮은 곳에서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리를 고무줄에 걸치면서 하는 형태도 있다. 이때 각각의 단계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발목·무릎·허벅다리 등 신체의 높이를 단계로 하여 머리 위까지 이르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를 '만세'라고 하고 먼저 만세에까지 올라간 편이 이기게 된다. 거드방이 이상부터는 뛰어서 발을 뺀기가 힘들기 때문에 뽀구나무서기를 하여 다리를 고무줄에 걸기도 한다. 보통 고무줄놀이는 1줄을 가지고 놀지만, 고무줄의 양쪽 끝을 묶어 2줄 놀이도 한다. 같은 편이 2사람이 고무줄의 양쪽 끝을 잡는 것이 기본이며, 단 2명이 놀 때는 한쪽 끝을 기둥에 잡아매고 한다.
편이 확정되면 양편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는데 보통 진 편이 먼저 고무줄을 잡게 된다. 고무줄을 잡게 된 편이 특정 노래를 주문하면 이긴 편은 그 노래에 해당하는 특정 동작을 취하면서 고무줄놀이를 한다. 만일 놀이 도중 한 아이가 탈락되었을 때는, 다른 아이가 자기의 몫을 다하고 난 뒤 탈락된 아이의 몫을 한 번 더 되풀이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다시 놀이에 걸 수 있다. 한 팀 모두가 성공하게 되면 놀이 방법에 따라 상대편이 다른 노래를 주문하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한다.

고무줄놀이 고무줄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 놀이. 동요 또는 변형된 구전동요에 맞추어 특정한 발동작을 취하면서 뛰고 남고 하는 유희로, 줄넘기*와 함께 8~12세 사이의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즐기는 놀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4명이 편을 갈라 노는 것이 보통이지만 더 많은 수의 인원이 하기도 한다.
놀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무릎 정도의 높이에서 각기 다른 노래에 맞추어 발이나 다리가 줄에 닿지 않게 뛰거나 넘는 발동작을 하는 형태이고, 같은 노래에 맞추어 아주 낮은 곳에서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리를 고무줄에 걸치면서 하는 형태도 있다. 이때 각각의 단계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발목·무릎·허벅다리 등 신체의 높이를 단계로 하여 머리 위까지 이르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를 '만세'라고 하고 먼저 만세에까지 올라간 편이 이기게 된다. 거드방이 이상부터는 뛰어서 발을 뺀기가 힘들기 때문에 뽀구나무서기를 하여 다리를 고무줄에 걸기도 한다. 보통 고무줄놀이는 1줄을 가지고 놀지만, 고무줄의 양쪽 끝을 묶어 2줄 놀이도 한다. 같은 편이 2사람이 고무줄의 양쪽 끝을 잡는 것이 기본이며, 단 2명이 놀 때는 한쪽 끝을 기둥에 잡아매고 한다.
편이 확정되면 양편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하는데 보통 진 편이 먼저 고무줄을 잡게 된다. 고무줄을 잡게 된 편이 특정 노래를 주문하면 이긴 편은 그 노래에 해당하는 특정 동작을 취하면서 고무줄놀이를 한다. 만일 놀이 도중 한 아이가 탈락되었을 때는, 다른 아이가 자기의 몫을 다하고 난 뒤 탈락된 아이의 몫을 한 번 더 되풀이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다시 놀이에 걸 수 있다. 한 팀 모두가 성공하게 되면 놀이 방법에 따라 상대편이 다른 노래를 주문하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한다.

자 파업 때 부상을 입어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으며,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 풀려났다(1934). 1934~35년 모스크바의 국제 레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뒤, 실용스크에서 혁명활동을 계속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38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폴란드 공산당이 해체되고 대부분의 공산당 지도자가 소련에서 숙청되는 시기에 폴란드의 감옥에 있었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침공으로 석방된 그는 바르샤바 방어전투에 참가한 뒤 소련군 점령지역인 동부의 리보프르 옮겨가 체지공장의 하급관리로 일했다.
1941년 독·소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 크로스노에 돌아와 공산당 지하조직을 결성하면서 정치활동을 개설했다. 1942년 7월 바르샤바로 가서 지구당 서기 및 새로 창당된 폴란드 노동자당(PPR)의 중앙위원이 되었고, 지하조직을 동원하여 과감하게 나치 점령군에 대항했다. 1943년 11월 전임자가 체포되자 PPR의 서기장에 올랐다. 그는 당의 이념선언문을 작성했으며 다른 좌익세력들과 제휴하여 국내국민평의회(KRN)의 창설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4년 7월 소련군이 폴란드에 진주하자 공산당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루블린으로 갔다. 1945년 1월 부총리로 임명되고 6월에 독일군이 점령했던 모든 폴란드 영토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부지역 장관이 되었으며, 12월에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차 PPR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되었다.
고무카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데 무자비했다. 그는 폴란드 농민당(PSL)의 분쇄에 직접 나서고 공산주의라는 기본틀 안에서 폴란드 사회당(PPS)과 노동자당(PPR)의 합당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동시에 강제적인 농업집단화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전통을 옹호하기도 했다. 고무카는 1947년 9월 코민포름* 결성에 반대하면서 소련의 노선유 비판했다. 이것이 그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스탈린으로부터 민족주의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받은 그는 1948년 9월 블레슈슈트 비에루트*에게 PPR의 서기장직을 내주고 1948년 12월 공산당에 사회당 계열 정당들이 폴란드 통일노동자당(PZPR)으로 통합된 뒤에는 정치국에서도 밀려났다. 1949년 1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같은 해 11월에 공산당에서 재명되었고 1951년 7월 마침내 투옥되었다.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했고, 결코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무카는 스탈린 사망 1년 뒤인 1954년말 석방되었으나 1956년 2월 호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하고 3월에 비에루트*가 사망하자 복권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4월 중앙위원회 제1서기가 된 에드바르트 오프르는 '민족주의적 편향에 빠진 자'라는 비난을 뒤 풀이하면서도 과거에 그를 체포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그해 6월 포즈나인의 노동자들이 공산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그는 다시 지도자로 떠올랐다. 스탈린에게서 받은 박해로 인해 고무카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권력부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전국에서 들끓자 공산당 지도자들은 1956년 8월 그에게 당원직을 부여했고, 10월에 중앙위원회 제1서기 및 정치국원으로, 곧이어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국가평의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권력에 복귀한 것은 그에게서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그가 실질적인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고무카는 온건한 개혁을 실시했다. 공포정치와 농업 집단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박해 등 가혹한 스탈린주의의 요소들이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주요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제의 몇몇 악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철저하지 못한 개혁추진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1950년대말까지

만 해도 그의 미온한 정책이 모스크바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1961년 호루시초프가 2번째로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시기를 과감한 개혁의 기회로 선용하는 데 실패했고, 폴란드 정부는 이내 침체상태에 빠졌다. 대중의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1968년 3월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도전하고 바르샤바 등지에서는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그는 제5차 전당대회(1968. 11)에서 제1서기로 재선되기는 했지만, 대중의 지지를 잃고 당지도부 내에서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해갔다. 고무카는 뒤늦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지도력을 회복해보려고 애썼다. 1969년 대(對) 서독정책을 바꾸어 1970년 12월 초 폴란드-서독 조약으로 관계정상화와 함께 폴란드의 서쪽 국경선을 인정받았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했지만 이미 폴란드 경제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식료품값 인상발표는 그다인스크·그디니아·슈체친 등지에서 노동자 폭동을 유발시켰고, 이에 따른 당 최고지도부의 개편으로 1970년 12월 20일 제1서기직에서 물러났다.
고무카는 1971년 국가평의회, 1972년 세입(의회)에서 공식 사퇴하기 전에 이미 정계에서 은퇴했다. 1980년 폴란드 공산당은 그의 75세 생일에 즈음하여 찬사를 보냄으로써 고무카를 재평가했다. □
A. Bromke

고무출 高武恤 ⇒ 대무신앙
고문 拷問 torture 처벌·학박·위압(威壓)·자백 또는 정보의 획득 등을 이유로 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부과.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정부는 적국인에 대하여 고문을 사용했으며, 이를 자국 법제도의 일부로 시 운용해왔다. 또한 고문은 정부 이외의 사인(私人)에 의한(이러한 범죄자에 의한) 행위를 기습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고통을 부과하는 형태는 저항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고도의 심리적 기법을 이용한 모든 물리적 장치와 화학물질의 주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문은 수많은 고대 문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었음이 분명하다. 정보를 얻어낼 목적으로 노예를 고문한 고대 그리스의 관행은 노예와 사회적 하위인분자로부터 증언을 받아내는 유효한 방법으로 사용된 초기 로마 법에 영향을 주었다.
로마 법에 대한 관심의 부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보를 위해 사용된 초기 방식에 대한 불만, 강력한 정치기구의 발전 등은 12세기초 유럽에서 고문의 사용을 증대시켰다. 그 이전에는 통상 결핵선서(cath)·신판(神判 ordeal)·결투 등의 방법으로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했으나, 13세기에 들어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백이 목격증인(eyewitness)의 증언과 함께 유죄를 확정짓는 수단이 되었다. 피의자는 정황증거(情況證據)를 근거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점점 고문사용이 증가했으나, 대체로 고문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유력한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말까지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문이 법률소송절차의 일부로 공인되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자를 심문할 경우 고문의 사용을 승인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고문도구 중에는 스트리피도(strappado)·피의자의 등 뒤로 양손을 단단히 묶은 뒤, 그 줄을 끌어올려 몸을 매다는 형틀)·랙(mack: 팔·다리와 몸통을 잡아당기는 도구)·섬스크루(thumb screw: 피의자의 엄지손가락을 죄는 쇠가 박힌 장치) 등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랜시스 베이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의 유용성을 주장했던 반면에, 일찍이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문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도 없다. 다만 그 행위가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어떤 행위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국가의 목표와 인권을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 또 이것은 인류의 공동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고문이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 법원이 검찰의 불기

자 파업 때 부상을 입어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으며,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 풀려났다(1934). 1934~35년 모스크바의 국제 레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뒤, 실용스크에서 혁명활동을 계속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38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폴란드 공산당이 해체되고 대부분의 공산당 지도자가 소련에서 숙청되는 시기에 폴란드의 감옥에 있었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침공으로 석방된 그는 바르샤바 방어전투에 참가한 뒤 소련군 점령지역인 동부의 리보프르 옮겨가 체지공장의 하급관리로 일했다.
1941년 독·소 전쟁이 일어나자 고향 크로스노에 돌아와 공산당 지하조직을 결성하면서 정치활동을 개설했다. 1942년 7월 바르샤바로 가서 지구당 서기 및 새로 창당된 폴란드 노동자당(PPR)의 중앙위원이 되었고, 지하조직을 동원하여 과감하게 나치 점령군에 대항했다. 1943년 11월 전임자가 체포되자 PPR의 서기장에 올랐다. 그는 당의 이념선언문을 작성했으며 다른 좌익세력들과 제휴하여 국내국민평의회(KRN)의 창설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4년 7월 소련군이 폴란드에 진주하자 공산당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루블린으로 갔다. 1945년 1월 부총리로 임명되고 6월에 독일군이 점령했던 모든 폴란드 영토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부지역 장관이 되었으며, 12월에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차 PPR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되었다.
고무카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데 무자비했다. 그는 폴란드 농민당(PSL)의 분쇄에 직접 나서고 공산주의라는 기본틀 안에서 폴란드 사회당(PPS)과 노동자당(PPR)의 합당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동시에 강제적인 농업집단화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전통을 옹호하기도 했다. 고무카는 1947년 9월 코민포름* 결성에 반대하면서 소련의 노선유 비판했다. 이것이 그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스탈린으로부터 민족주의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받은 그는 1948년 9월 블레슈슈트 비에루트*에게 PPR의 서기장직을 내주고 1948년 12월 공산당에 사회당 계열 정당들이 폴란드 통일노동자당(PZPR)으로 통합된 뒤에는 정치국에서도 밀려났다. 1949년 1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같은 해 11월에 공산당에서 재명되었고 1951년 7월 마침내 투옥되었다.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했고, 결코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무카는 스탈린 사망 1년 뒤인 1954년말 석방되었으나 1956년 2월 호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하고 3월에 비에루트*가 사망하자 복권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4월 중앙위원회 제1서기가 된 에드바르트 오프르는 '민족주의적 편향에 빠진 자'라는 비난을 뒤 풀이하면서도 과거에 그를 체포한 것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그해 6월 포즈나인의 노동자들이 공산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그는 다시 지도자로 떠올랐다. 스탈린에게서 받은 박해로 인해 고무카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권력부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전국에서 들끓자 공산당 지도자들은 1956년 8월 그에게 당원직을 부여했고, 10월에 중앙위원회 제1서기 및 정치국원으로, 곧이어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 국가평의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권력에 복귀한 것은 그에게서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그가 실질적인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고무카는 온건한 개혁을 실시했다. 공포정치와 농업 집단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박해 등 가혹한 스탈린주의의 요소들이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고 주요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제의 몇몇 악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철저하지 못한 개혁추진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1950년대말까지

로마 시대부터 키케로와 세네카 등은 고문에 대해 공격했다. 세네카는 "고문은 무고한 사람까지도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중세 유럽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피고자 무죄인 경우에도 그는 불확실한 범죄 때문에 일정한 처벌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라고 말하면서 고문의 도덕적 타락성을 지적했다. 수 세기에 걸쳐 고문에 대한 법적·도덕적 비난이 계속되었으나 그다지 효용을 얻지 못하다가,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인도주의 운동과 유럽 법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변화 등에 힘입어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새로운 소송절차는 경험증거에 따른 강한 혐의를 근거로 한 유죄판결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복역자의 증언과 피의자의 자백이 갖는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영국 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고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1532년 카롤리나 형사법전(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의 제정 이후 근세 초기의 규문주의 절차(刑問主義節次: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인정된 소추권자의 소추에 외적 않고 범인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절차로서,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의 동일성을 특징으로 함)에 있어서는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백이나 2명 이상의 신용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자백 위주의 증거법에는 '자백은 증거의 왕'(confessio regina prolationum)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자백의 증거가치를 절대시했고, 이러한 자백위주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가혹한 고문과 연결되어 극심한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의 문화적 산물의 하나인 '개혁된 형사소송법'(나폴레옹 치죄법)에서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의 요청에 의해 고문이 금지되고 동시에 법정증거주의를 버리고,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일임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했다.

1800년경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고문사용을 법적으로 폐지시켰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고문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 근대국가의 정치적 갑압이 이러한 고문의 증가를 부추겼는데, 특히 전시(戰時)의 군대나 정보기관에서 고문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고문이 가장 널리 확산된 곳은 이탈리아와 나치 독일 등의 파시스트 국가나 스탈린 치하의 소련 공산주의 정부와 같이 법률을 이용하여 이데올로기를 강제했던 국가들이다. 나치 강제수용소에서는 '의사들이 소름끼치는 고문방법을 고안해내고, 피고문자들을 계속 고문할 수 있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자행했다.'

1948년에 국제연합(UN)에서 고문의 사용을 비난하는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프랑수아 알제리와 그리스에서 널리 자행된 고문에 대한 실상이 폭로되었는데, 이는 20세기 후반에 있어서조차도 고문이 얼마나 많은 문명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고문은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중동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

현대의 고문기술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전통적 방법뿐만 아니라 고문에 대한 의학·심리학 연구 결과로부터 발전된 심리학·약리학(藥理學)의 복합적 방법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신경을 교란시키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는 신체의 자연적인 고통역제과정을 억압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가해진 참기 어려운 고통을 심화·연장시킨다. 그밖의 방법으로는 수면과 감각을 박탈하는 것, 이빨이나 손톱, 발톱을 강제로 뽑아내는 것, 모의처형(mock execution) 또는 신경자극제의 사용 등이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행해진 한 실험은 가혹성 반대

자만이 고문을 가할 수 있다는 종래의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실험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들인 지원자들에게 일정 대상자를 상대로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의뢰했다. 대상 '학습자'를 일정장지에 끈 등으로 고정시키고 전극을 부착시킨 뒤 그 학습자가 틀린 대답을 할 때마다, 지원자들은 강도높은 전기충격을 그 학습자에게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원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습자는 직업적인 배우였으며 사실상 그들에게 아무런 충격도 전해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지시를 받은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알기에도 위험한 수준까지, 심지어는 학습자의 절규와 항의를 들은 뒤에도 계속해서 전기충격을 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문은 고신(拷訊)·형신(刑訊)·고략(拷掠) 등의 여러 이름으로 행해져왔는데, 법사적(法史的) 측면에서 고찰하면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과 고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형(刑)이라 불렀다는 점이 특색이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당제(唐制)를 따랐고, 조선시대에는 주로 명법(明律)에 의하여 고문이 시행되었다. 최윤은 신문(訊問)에 대해서 자기부죄적(自己負罪的) 진술의 의무가 있었으므로 최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헌법상으로도 고문은 완전히 폐지되었고("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구성하여 가중처벌되며, 이러한 고문금지정신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등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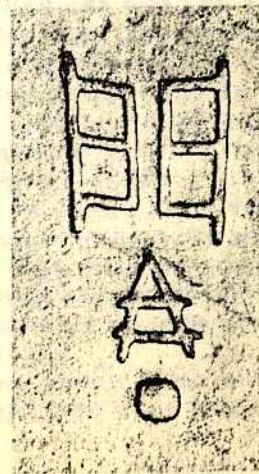
고문 古文 한문으로 씌어진 산문 문체의 하나. 기교와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한 변려문(駢體文)에 반발하여 진한(秦漢) 이전의 순정한 문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상에 따라 지어진 글이다. 당대(唐代)에 유행한 변려문은 현실을 반영하거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외면하였고 꾸밈이 많았다. 이에 한유(韓愈)를 중심으로 한 고문운동가들은 순정한 고문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유가 주장한 것은 고문을 모범으로 삼아 창조적인 문장을 구사하자는 것이었고, 옛사람의 진부한 말을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공자의 도덕인(道德仁義)을 보호하고 사설(邪說)을 막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이한 문언문(文言文)을 썼으며, 이는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갖춘 당시의 문장을 내세운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에게 이어져 고문운동의 주된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편 이와 다른 줄기를 이룬 고문운동가들도 복고(復古)에만 치중한 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명나라에 와서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으며, 문장은 반드시 진한의 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명 '의고문파'(擬古文派)라고 불린다. 고문운동은 시대마다 내세운 바가 조금씩 달랐으나 당시(唐詩)의 병법을 극복하여 그 시대에 적합한 문장을 쓰자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송나라 때에 구양수(歐陽修) 등이 고문을 씌으로써 고문은 변려문을 완전히 압도하였고 이후 문예 산문의 주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고려시대에는 《문선(文選)》의 영향을 받아 변려문이 성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도 완전히 고문만이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고문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고려말의 이재현(李齊賢)에서 시작되며, 그는 당송시대의 고문

을 모범으로 삼았다. 나아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명나라와의 잦은 교류에 힘입어 고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크게 '의고문파'와 당송고문을 위주로 하는 '당송고문파'로 나눌 수 있다. 이재현이 제창한 고문은 제자인 이색(李穡) 등이 정주학(程朱學)에서 즐겨 쓰는 어록체(語錄體)와 주소체(註錄體)를 혼용하여 차츰 고문의 본령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의 최립(崔笠)이 명나라 의고문파의 고문이론을 수용하여 의고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밖에 윤근수(尹根壽)·신홍(申弘)·신유환(申維漢)·허복(許穆) 등도 영향을 받았다. 의고문파는 조선 중기까지 상당한 세력으로 문단을 지배하였으나 복고를 위한 모방에만 치우쳐 독창성이 떨어진 편이었다. 이와 달리 개성을 중시하면서 고문을 완성시킨 문인들이 있었는데, 허균(許筠)·장유(張維)·이식(李植)·김창협(金昌協)·박지원(朴趾源)·홍석주(洪奭周)·김매순(金邁淳)·이건창(李建昌)·김택영(金澤榮)·이남규(李南圭) 등이 이에 속한다. 이중 허균은 의고문을 반대하는 고문이론을 전개하여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고문본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당송고문의 진정한 가치는 복고에 있지 않고 자기 시대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일상어를 갖고 다듬어서 사용하는 것이 참다운 고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고문관을 이어 보다 혁신적인 내용과 다양한 표현을 구사한 이가 박지원이다. 그는 문은 반드시 진한의 것을 따르고 시는 반드시 성당풍(盛唐風)을 따라야 한다는 의고문파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새롭고 개성적인 문학을 주장하여 금문(今文)이 곧 고문임을 내세웠다. 홍석주·김매순은 금문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박지원의 고문관과 비슷하며, 이진창과 김택영은 모방과 표절을 배격하고 개성있는 문장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문은 중국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으나,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과 감정이 배어든 문장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조선 후기 고문가들에 이르러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고문에서 산문문학의 정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고문은 언문(言文)이 일치되지 않은 한계로 갑오개혁 이후로 없어졌으나, 근대적 산문의식은 신소설 등에 긍정적으로 계승되었다.

고문 古文 (병)Guwen (체)Kuwen 중국 한자의 초기 형태. 은(殷: BC 18~12세기)·주(周: BC 1111~221) 시대의 청동그릇과 돌건물에서 그 표본이 발견되었다. 금문을 써서 만든 글자를 뜻하는 '금문(金文)'이란 용어는 고문을 가리키는 또다른 이름이다. 고문은 신탁용 뼈나 거북이의 등껍질에서 발견되는 고대 상형문자인 갑골문(甲骨文)의 형태와 비슷하다. 아직



청동 껍데에 있는 고문(BC 11세기)

By courtesy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Taipei, Taiwan, Republic of China

교도소내 양심수 폭행 잇달아

최 근 교도소와 구치소내에서 구속학생, 노동자, 일반양심수에 대한 교도관들의 폭력행위가 빈발해 구속자가족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민주화운동단체의 거센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다.

「민가협」은 85년 12월 이래 교도소와 구치소내에서 일어난 교도관 폭행행위가 10여건에 이르며 그같은 폭행으로 최순일군(외국어대)은 고막이 터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문식씨(서울대 제적생,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자)는 얼굴을 짓밟혀 시퍼렇게 멍이든 상태로 재판정에 출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85년 12월 23일 하오 7시경 서울구치소 보안과소속 교도관들은 ▲「군사독재타도」와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때 제시한 20개항목의 요구조건관철 ▲난방대책 ▲도서차입규제완화를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후 지하실에 감금했다가 다시 취침때는 포승줄로 꽂꽂 묶어두었다. 이같은 폭행으로 민병렬(서울대), 민관홍(연대), 김영기(성균관대) 등 학생 20여명은 온몸이 멍이 들고 얼굴이 찢어지고 입안이 허는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3명은 기절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구속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항의하던 박문식씨가 지하실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박씨가 폭행을 항의하자 다시 20여명의 보안과소속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포승줄로 묶고 구두발로 짓밟아 박씨는 기절했다. 이후 박씨는 팔다리를 등으로 돌려 수갑을 2개 채운 이른바 「비너뽑기」 자세로 몇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박씨에 대한 폭행은 이강용보안

계장의 지시로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족은 서울구치소장, 보안과장, 보안계장, 9시주임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안양교도소에서는 3월 17일 수감중인 김봉한군(성균관대)이 점조때 점조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김군을 구타한 후 다시 장갑낀 손가락으로 눈을 여섯차례 찌르고 가래침을 얼굴에 뱉었다. 이를 본 1동재소자들은 곧바로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3월 20일 11시경에는 같은 동(棟)에 수감된 문용식군(서울대) 등 7명이 집필실로 들어가

한편 갑자기 면회가 되지않아 궁금하던 구속학생 가족들은 하오 6시경부터 교도소내에서 「보안과장 물러가라」, 「폭행사건 공개사과하라」는 학생들의 외침이 계속 들리자 귀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나 경비대원들에 의해 강제해산당했다. 21일 다시 안양교도소에 모인 구속학생가족 45명은 폭행당한 김봉한군을 면담, 송선용보안과장의 공개사과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의정부교도소에서는 수감중인 이춘(고대), 심인숙(숙대), 박은주(이대) 양 등이 소내폭행행위에 항의, 재소자인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면서 김봉한군 폭행사건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는데 이때 경비대원 30여명이 몰려와 이들을 폭행하면서 강제로 끌어들였다.

권보장과 행형법개정을 요구하면서 2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원주교도소에서는 3월 25일 이석재(경희대) 성호군(전남대)이 도서차입불허와